



2023

가정 추도 예배



인도자: 각 가정의 대표

예식사 인도자

다같이 묵도하심으로 000 님의 ()주기 추모예배를
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.

묵도 인도자

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
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(단7:18)



기도 인도자

하나님 아버지! 사랑하는 000 님을 추모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.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. 주님, 사랑하는 고인이 하늘 나라에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.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. 이 사실로 인해 우리 안에 하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시고, 우리도 고인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온 가족이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

찬송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함께

1.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
하늘 영광 밝음이 어둔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
2.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
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
3.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
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

말씀봉독 요한일서 4장 9-10절 함께

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



선물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?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. 상대방의 정성이 고맙기도 하고 내 자신도 대접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. 크든지 작든지 선물에는 소중한 의미가 들어 있기에 좋은 것입니다.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. 그런데 그냥 평범한 선물이 아닙니다. 이 선물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온 우주를 팔아도 살 수 없는 위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.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

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 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고 마귀와 죽음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. 이러한 능력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.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이 은혜를 받기 원하셨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. 그렇기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는 죄 사함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. 마귀의 저주에서도 해방되고 사망 권세에서도 해방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.

0 0 0 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분이십니다. 살아생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. 그렇기에 지금 그 축복 속에서 천국에 계신 것입니다.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것입니다. 이로 인해 우리는 고인의 기일을 소망 가운데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. 하늘에 계신 0 0 0 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? 늘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

0 0 0 님의 추모예배를 드리는 오늘,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의 얼마나 위대한 선물인지를 늘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.

1.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
2.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
3.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
4.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
(후렴)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

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, 나라이 임하옵시며,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,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,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,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.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